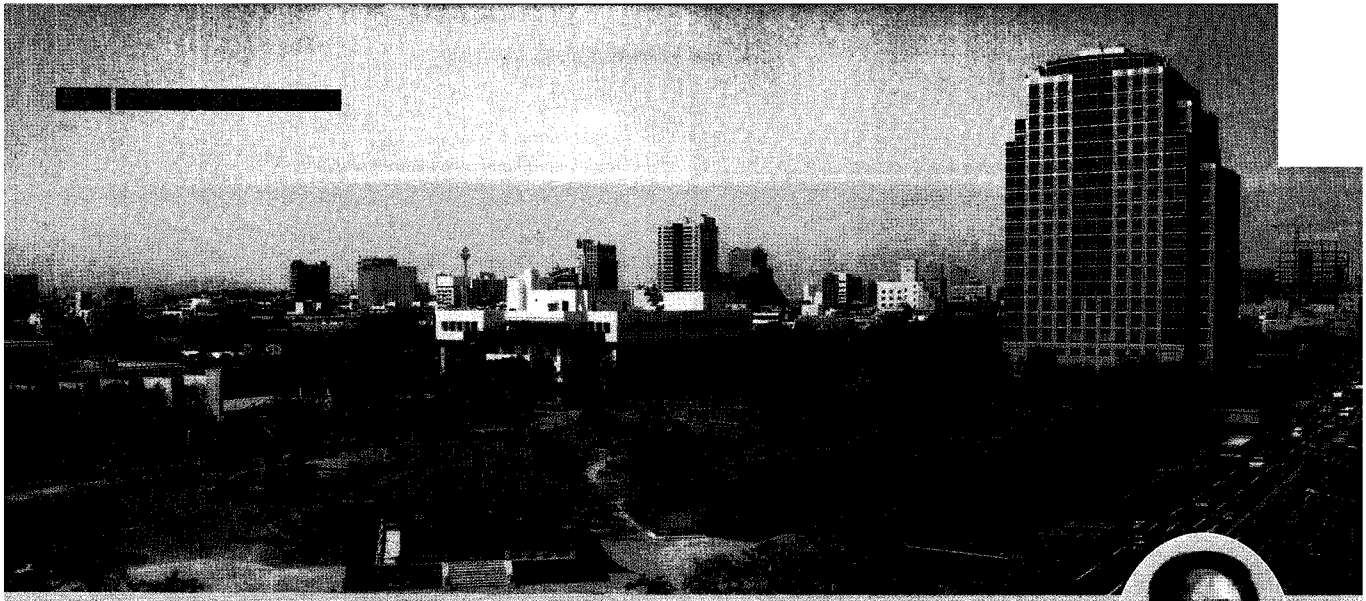


화장실문화개선운동 및 신천의 화장실정비

글_권영수 대구광역시 수질관리과 / 과장

본 자료는 환경 · 문화 · 복지의 인프라(Infra)구축으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천변 정비를 하는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난 7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제2회 한 · 일 화장실포럼의 한국 측 주제발표의 원고를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대구광역시 소개

대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유물 중에 무문토기가 있음을 볼 때 대략 3천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조선 선조 때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영남지방의 행정 · 산업 ·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왔으며 1981년 7월1일 직할시로 승격된 후 1995년 1월1일 대구광역시로 개칭하였다.

2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885㎢에 살고있으며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고 매우 건조하며 뚜렷한 과우 지대로서 계절의 변화가 급속한 편이다.

대구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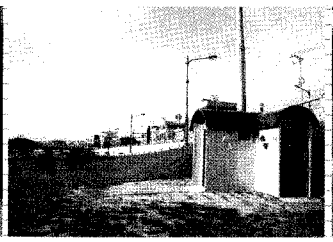
전통적인 주종산업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99~2003)」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섬유도시 및 패션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구섬유 박람회(2002.3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3.8월)를 계기로 국제도시로서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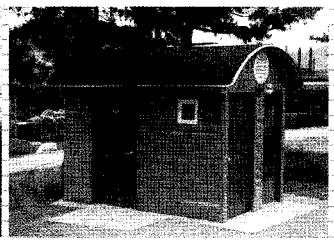
IEA가 선정한 Solar City로서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로 수질보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천변의 화장실을 정비하게 되었다.

대구의 화장실문화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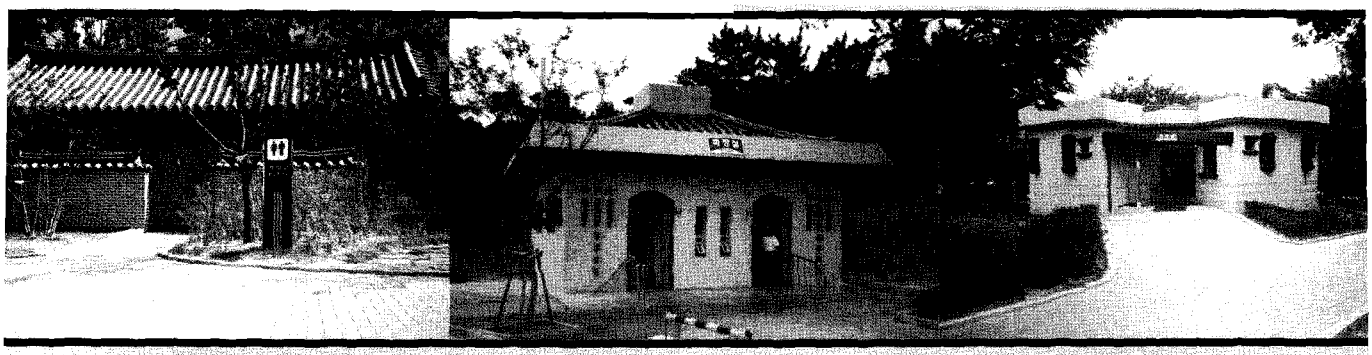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는 그 도시의 종합적인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는 바 기존의

문재점이 노출된 FRP소재 수거식 간이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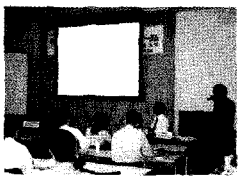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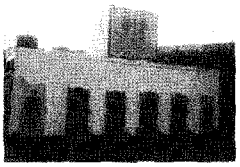
신천둔치 및 공원에 설치되어진 완전소멸식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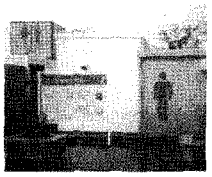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 신축되어진 공중화장실



제2회 한·일 화장실포럼의 한국측 대표로 발표하고 있는 구영수과장





어느위치에서나 찾을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 안내표식

공중화장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하여 누구나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99년 11월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총 450개의 공중화장실으로 설치장소 및 이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372개소(자연공원:72, 도시공원:146, 유원지:16, 역:32, 터미널:10, 시장:91, 기타:5)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방문객 및 시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60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문화개선 주요활동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계획을 시작으로 소요예산 확보와 함께 공중화장실 업무담당자들의 선진화장실 견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화장실문화개선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문분야별로 초빙한 교수들의 개선 안을 적극수용 하여 "화장실개선지침"을 마련하여 각 관리 주체별로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우수화장실 사진 및 관련용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화장실문화개선과 시민들의 청결 시민들의 청결사용의식 제고에 노력한 결과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에서 관내 수성구청의 민원실 화장실이 특별상 및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였다.

신천 둔치의 화장실개선

신천은 대구시가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12.5㎞의 하천으로 양안에 둔치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산책, 체육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신천 둔치에 조성된 수변 공원에는 1988~1992년까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FRP소재 수거식 간이화장실이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로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천의 수질보호를 위해 무방류 시스템을 원칙으로 수려한 외관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수 배양된 바이오 칩을 이용한 고속발효 소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해 본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맺음말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면서 얻은 결론은 시설의 정비와 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개개인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사용하며 시설물을 내 것같이 아끼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야말로 화장실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